

최고 포식자 인류야말로 '자연의 기식자'가 아닐까

리뷰-ACC재단 관객 참여형 연극, 제프 소벨의 '푸드'

'음식' 모티브 인류사 성찰하는 작품...자연과의 공생에 화두 던져 제프 "5·18 상흔 간직한 광주 관객들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갈 것"

그는 공연 중 의자에 앉아 한동안 연초를 태웠다. 대담하고 대단하다. '푸드'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감퇴시키는 연무를 보니 이날 공연이 평범한 다이닝 쇼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관객들 앞에는 말의 안장 맛이 나는 북부 프랑스 와인 '리스티 아머(녹슨 갑옷)'와 화학 향이 가득 '용의 해' 등이 전담됐다. 시음은 자유. 셰프 역을 맡은 제프 소벨은 스키퍼로 분장한 뒤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식재료로 쓸 물고기를 잡거나, 동형 접시에 음식을 소환하는 마술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윽고 제프가 30인용 대형 식탁보를 잡아당기자

그 아래에 잔뜩 쌓여있던 흙더미, 기름을 옮기는 차량들, 모형 집 등이 정체를 드러낸다. 수저를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기류가 감돌고, 베일에 싸여 있던 인류세(人類世)적 화두가 '메인 앙트레'로 서빙된다. 음식을 모티브로 인류 문명의 본말과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공연, '푸드(FOOD)'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재단)이 지난 19-21일 ACC 극장1에서 선보인 관객 참여형 연극 '푸드'는 일상적 소재인 '음식'으로 인류사를 성찰하는 초현실적 작품이었다. 공동 연출을 맡은 제프 소벨이 연기했는데,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과 링컨 센터, 워싱턴DC 등에서 공연했으며 베스트 에든버러 어워드를 수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다.

"얼마 전 광주 양림동 땀관마을에 설치된 예술작품 '고장난 시계'와 시화를 감상했어요. 멈춰 있는 시계들이 상처받은 광주의 마음을 은유하는 것 같았죠. 지역성이 깃든 예술을 통해 이번 퍼포먼스의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연에 앞서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난 제프 소벨의 말이다. 그는 "인류의 파괴성에 대해 성찰하는 이번 작품은 특히 5·18의 상흔을 간직한 광주 관객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며 "공연에 전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저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밌는 공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전 무대에서 그는 샐러드 보울에 머리를 파묻거나, 스파게티를 머리 위에 올리는 등 파격적인 연

출로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어떤 메뉴를 서빙할 것이냐는 질문에 'Secret'으로 답했지만,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니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다.

공연에서 손님(관객)들은 '애호박 찌개', '버섯 들깨탕', '갈비찜', '미나리무침' 등 한국적인 음식을 주문했다. 제프는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밥과 국을 내어줬다. 참여형 공연이라는 테마답게 관객들의 역할도 중요했는데 일부는 주방장의 일일 수셰프(Sous chef·부주방장)가 돼 식재료를 나르거나 테이블 위에서 자동차 모형을 굴리는 배역을 수행했다.

"만찬회"를 표방하는 1부가 끝나자 거대한 테이블보가 벗겨지고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가 사과 네 개, 푸릇한 샐러리 하나를 입속으로 밀어 넣은 뒤다.

공연장에 앞치마를 두른 셰프는 더는 없다. 찬란하던 상드리에는 금방 떨어져 파편을 만들 것처럼 위태로운 장면을 연출했다.

벽면에 걸려 시종일관 시선을 사로잡은 그림은 윌리엄 홀블록 비어드의 'The bear dance'. 다 빈치의 성결한 프레스코화 '최후의 만찬' 대신에 이 작품이 내걸린 것은 일종의 복선이었을 것이다. '곰'들이 음식 앞에서 열망처럼 춤추는 화폭은 인간의 식탐 가득한 '검은 입'처럼 보였다. 역사와 자연 위에 군림해 온 인간에 대한 알레고리로 다가왔다.

제프는 식탁에 올라 미니어처 카, 건물, 석유 시추기 등 인류 문명의 이기를 전시했다.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면서 사자, 코뿔소의 몸짓을 흉내 내거나 신이 인간에게 불꽃을 선사하는 태초의 모습을 재현하듯 불을 지폈다. 모든 동작은 '매직 쇼'와 같았는데, 마술 파트를 담당할 스티브 쿠이포(Steve Cuiffo·공동창작자)의 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에 앞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프 소벨.

테이블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빌딩'들이 모래를 뚫고 솟아오르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사각형 테이블을 수놓은 마천루, 녹슨 점탑 모형은 인간에게 "이것이 인류가 바라는 탐(貪)의 형상인가"라고 반문하는 듯했다.

피날레는 제프가 모래 아래로 빨려들어가는 장면으로 장식했다. 기괴하게 솟은 빌딩과 그 위에서 점멸하는 붉은 항공 표시등만이 관객들을 응시하는 듯해 허무한 느낌도 들었다. 지구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한 인류야말로 '자연의 기식자'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손님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된 셈.

이날 'FOOD'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최고의 화제작으로 손꼽힐 만한 저력을 과시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관객참여형 연극 'FOOD'가 지난 19~21일 ACC 극장1에서 펼쳐졌다. 테이블보를 벗기자 인류 문명의 이기들이 관객들에게 '매뉴'처럼 전해지는 2부 장면.

현실 너머로 보이는 환상과 가상의 세계들

호남조각회 기획전,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영어의 '일루전' (illusion)은 착각, 환상, 가상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현실처럼 보이더라도 실상은 또렷하지 않고 환상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어쩌면 예술의 본질은 일루전인지 모른다.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 보이는 이면의 양상을 파고드는 것이 예술이다. 장작은 기준에 없는 것을 새롭게 장안하고, 풀어내며, 해석하는 일이다. 한편으로 있는 것을 전복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각하는 작용이 반응하는 형상'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호남조각회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호남조각회(회장 김광래)는 호남대 조각전공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단체로 회원들은 전국에서 다양한 작업을 펼쳐가고 있다. 김광래, 김대승, 김상욱, 김숙빈, 김지은, 박성문, 선명희, 양훈섭, 우

정호, 이병선, 정숙경, 조성태, 천기정, 최용석, 허서형 작가 등이 모두 25개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현대적인 AI와 미디어 등 첨단 기술로 대변되는 현 상황에서 조형의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표현되고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광래의 '떠나가는 배'는 먼 곳으로 향하려는 배의 역동적인 장면을 표현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는 미지의 곳에 대한 기대와 과연 그곳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교차한다. 작품을 오래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김대승 작가의 '부부'는 노년 이혼 남편과 부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남편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작은 의자에 간신히 몸을 의탁하듯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다. '간 큰 남자'의 행태를 희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김광래 작 '떠나가는 배'

김지은 작가의 '너의 생일'은 생일을 맞아 주인이 뿌려주는 꽃잎에 반겨줘 신이 난 모습을 구현했다. 작품에서 흥겨움과 정겨움이 묻어난다.

한편 김광래 조각회장은 "이번 전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단면들이 지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일루전'을 매개로 조각들이 구현되고 표현되는 부분을 사유하는 것도 예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펼치는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공)

아이들 멜로디로 떠나는 '봄의 여행'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획공연, 5월4일 ACC 어린이문화원

아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봄'의 멜로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기획공연 '봄의 여행'을 오는 5월 4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펼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어린이·가족문화축제인 '하우펀(HOW FUN) 10' (이하 하우펀) 일환으로 펼쳐지며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가곡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총 4부로 구성되며 1부는 토스티 곡 '4월', 슈베르트의 '봄의 믿음', 스키타라 '제비꽃' 등 외국 가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2부는 흥난파 '고향의 봄', 윤용하 '나뭇잎 배', 김경선 '과수원 길' 등 한국 가곡들로 관객들을 만난다.

나를 캐낸 처녀에게 반한 목동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나물개는 처녀'는 현재명의 작품이다. 권길상 작 '푸르다'와 한용희 곡 '고향방' 등도 3부 레퍼토리에 있다.

'벚꽃'을 모티브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미를 장식한다. '벚꽃팝콘(정보형)', '벚꽃여행(국현)'을 비롯해 버스커버스커 장범준의 '벚꽃엔딩' 등이 편곡 버전으로 4부를 장식한다. 편곡에 성화정.

지휘는 국립안동대에서 성악/합창지휘를 전공한 권기원이 맡는다. 도쿄 국제합창대회에서 은상, 국제 동아시아 합창제에서 지휘자상 및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안동시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피아니스트 김지영이 반주를 맡을 예정이다. 중앙대 피아노과와 국민대 대학원 음악학과, 일본 엘리자베스 음대 피아노과 등을 졸업한 김 씨는 현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로 있다.

권기원 지휘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족들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

지역 인재 양성 '광주학생미술대전' 29일~5월6일 공모

지역 학생들의 미술 역량을 제고하고 미술 인재 양성 거점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학생미술대전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과 (사)광주미술관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미술대전은 29일부터 5월6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광주 초·중·고교생이면 참여 가능하며 주제는 '환경', '나의 꿈', '가족' 중 1가지를 선택해 그리면 된다. 4월31일까지 그림을 그려 촬영한 작품 사진(파일), 신청서 등을 1차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료는 제한 없다.

1차 선정된 작품 사진(파일)은 원본 그림을 5월 11일~14일(오후6시)까지 시립미술관 안내데스크에 2차 접수하면 된다.

최종 작품 60점은 5월21일 광주시립미술관(사)광주미술관회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4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특선 14점, 입선 30점 등이다. 시상식은 추후 개별 공지하며, 이번 미술대전은 광주신세계가 후원한다. 수상작 전시회도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24일부터 5월29일), 광주신세계(5월31일~6월9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이번 미술대전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술을 좋아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영희(사)광주미술관회 이사장은 "미술대전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미술계, 시민 등이 전시회 등을 매개로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광주미술관회로 전화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